

제14회 오월창작가요제 대상 '돈키호테'

25일 5·18민주광장서 성료
114곡 접수곡 중 8곡 본선
“세상의 편견과 맞서” 내용
금상 ‘오월의 세상’ 등 영예

“44년 전 자유를 꿈꾼 5·18을 생각하며 이 시대 꺾이지 않을 청춘의 자유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뜻깊은 자리인 오월창작가요제에서 대상을 주신 광주시민께 감사합니다.”

지난 2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경연에서 창작곡 ‘돈키호테’를 부른 밴드 삼점일사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노래 ‘돈키호테’는 5·18민주화운동의 자유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특히 세상의 편견을 타파하고 무모하지만 자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청춘의 마음을 그루브 넘치는 베이스, 드럼, 보컬 사운드로 표현하고 있다.

밴드 삼점일사의 리더 김태강 씨는 “밴드음악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가던 중 오월창작가요제에서 우리만의 색깔로 ‘자유’를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 출전하게 됐다”며 “의미가 큰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 귀한 상을 준 광주

시민, 대회 심사위원들께 감사하다. 출전 팀 모두 좋은 음악을 선보였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5·18의 청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위해 투쟁한 것처럼 지금의 청춘들이 시대의 불안과 걱정애 굴하지 않고 자유를 꿈꾸길 바라는 마음에서 곡을 만들었다”며 “기사단이 자유를 위한 여정을 떠나는 것처럼 웅장한 보컬 사운드와 리드미컬한 피아노, 베이스, 드럼 연주가 매력적인 곡이다”고 말했다.

삼점일사는 2021년 싱글 앨범 ‘도미노’를 발표하며 데뷔한 팀으로 보컬·드럼 김태강, 보컬·피아노 박상호, 베이스 김현우로 구성된 3인조 밴드다. ‘THROWING UP A FUN(즐거움을 쏟아내자)’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며 특히 무리수 3.14에서 영감을 얻은 밴드명 ‘삼점일사’는 무한하면서도 대중적인 음악을 선보인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제14회 오월창작가요제 대상 수상으로 트로피와 창작지원금으로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또다른 두근거림의 오월’이라는 주제로 치러진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에 총 114곡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밴드



밴드 삼점일사가 지난 25일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보컬·피아노 박상호, 가수 박종화(심사위원장), 보컬·드럼 김태강, 베이스 김현우.

사단법인 오월음악 제공

‘삼점일사’를 비롯해 총 8팀이 지난 25일 본선 무대에서 승부를 겨뤘다. 8팀의 경연 무대는 경연 참가곡과 비경연 개별곡 각 2곡을 노래하며 본인들의 음악적 기량을 광주시민에 선보였다.

또 제8회 가요제에서 ‘무명’으로 대상을 수상한 정밀아, 제13회 가요제에서

‘Black Bird’로 금상을 수상한 레드클라인의 축하공연으로 그 열기를 더했다.

금상은 각자의 이유로 날개를 달지 못하고 펼치지 못했던 많은 꿈들을 응원하며 만든 곡인 풀잎이슬의 ‘오월의 날’이, 은상은 서로의 마음에 불을 켜 밝혀주기를, 세상이 더 환해지기를 꿈꾸며 부르는

허정혁의 ‘촛불이 켜지면’이, 동상은 고된 노동에 대한 육신의 고탄팍과 영혼의 메마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을량의 ‘노래가 필요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장려상은 현 시대를 블루스 음악에 맞추어 풍자한 곡인 양산동 호랭이의 ‘My Love Highway’, “만약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면?”이라는 물음을 던지며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우나의 ‘지구멸망?’, 자유와 민주를 쫓아 피우기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날을 기억하고자 하는 은별밴드의 ‘그날을 피운다’, 평온한 일상에서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맞서 버틸 수 있도록 노래하는 몽글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가 선정됐다.

사단법인 오월음악이 주최·주관하고 광주시, 전남대호남학연구원, 해리치세 무법인, ㈜서울이앤지, 엔에이치네트웍스(주), ㈜이서이앤씨가 후원한 2024년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본선에 입상한 8곡의 음원은 6월 중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본선 영상 또한 오월창작가요제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땅과 숲의 철학·세월호 애도... 화제의 영화 GV 개최

내일 ‘땅에 쓰는 시’
내달 2일 ‘목화숨 피는 날’

광주극장은 절찬리 상영 중인 화제의 개봉작 GV(게스트방문·Guest Visit)를 연다.

지난 4월17일 개봉해 관객들의 꾸준한 호평 속 2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둔 ‘땅에 쓰는 시’ GV가 오는 30일 오후 5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 날 GV는 광주·전남 건축가회 주최로 정다운 감독이 참석하고 진행은 이영미 (주)집합도시 대표가 맡는다. 영화 ‘땅에 쓰는 시’는 선유도 공원, 여의도 셋강생태공원, 경춘선 숲길, 서울 아산병원 등 모두를 위한 정원을 만들어 온 조경가 정영선의 땅을 향한 철학과 내일의 숲을 위한 진심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세월호 10주기에 개봉한 ‘목화숨 피는

날’의 GV는 오는 6월2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GV는 김재희의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어지며 신경수 감독과 박원상, 우미화, 정규수, 노해주 배우가 참석한다. 영화 ‘목화숨 피는 날’은 10년 전 사고로 죽은 딸과 함께 사라진 기억과 멈춘 세월을 되찾기 위해 나선 가족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참사를 잊지 않고 애도하기 위한 영화 프로젝트 ‘봄이 온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화다. 실제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촬영이 진행됐으며, 이 외에도 안산, 목포, 진도 등 참사와 연관이 있는 세 곳의 로케이션으로 이야기를 더욱 리얼하게 담아냈다.

상영작 시간표는 광주극장 카페(<https://cafe.naver.com/cinemapgwangju/16644>)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반려식물과 지속가능한 동행 ‘식물을 위한 기물’

내달 29일까지 동구 미로센터
마당텃밭·그린테이블 등 선봬

광주 동구는 오는 6월 19일까지 미로센터 1층 ‘미로1’ 전시 공간에서 식물과 기물의 관계 구성을 통해 삶의 미학으로 오월의 의미를 생명성으로 연결하는 예술러인 ‘식물을 위한 기물器物’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일상 속 반려 문화의 대상으로서 늘 돌리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식물과 너무 흔하여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오월은 우리에게 새로움이 아닌 익숙함이라는 정서를 제공한다. ‘식물을 위한 기물器物’전은 생명성에 근거한 이들의 실험적 관계 미학을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전시 형태로 선보인다.

전시구성은 △담양 무월리에서 농사지며 예술하는 송일근(도자)·정연두(설치·섬유)의 마당 텃밭을 옮겨 놓은 듯한 ‘미나리의 합창’ △자연에서 받은 떨림을 일상의 울림으로 작업하는 해남 목신의 숲윤용신(풀작가)의 ‘그린 테이블’ 이야기 △곡성 장아트 공방의 정희창(옹기작가)의 소외된 식물과 사물을 위한 간절함을 작업한 ‘어린 나무들’ 3개 섹션으로 나뉜다. 익숙함이 새로운 시간이 되는 순간들을 다채로운 작품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본인의 예술가적 견해로 식물을 위한 기물을 새롭게 창작하거나 다시 보기를 통해 새로운 쓰임으로 반려 식물과의 지속 가능한 동행을 제안한다. 또한 수집 전시(아카이브)를 통해 과거와 현대



윤용신 작 ‘자연과 기물의 순환’.

광주 동구 제공

를 아우르는 식물과 공예의 이야기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예·디자인과 식물의 관계 미학을 토대로 제안된 본 전시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이어주는 오월의 이야기가 건강함으로 비경험 세대에게 공유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공예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창출

하고자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연두 바느질 작가는 “오월 들녘에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라나는 쑥부쟁이, 민들레, 미나리, 애기풍뎠이, 등 푸르름이 다 톡톡이 즐거움을 안겨주는 자연을 전시장에 들이는 과정에 치유와 화해와 공생에 관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된다.

도선인 기자

국립나주박물관 ‘토우장식토기’ 전시

7월까지 ‘영원한 여정...’
사람·동물 등 상형 눈길

국립나주박물관은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토기’를 오는 7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상형토기와 토우장식토기 240여 점을 통해 고대의 장승의례를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해설 프로그램과 함께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교체돼 선보이는 전시품은 광주 계림로 30호 무덤에서 출토된 토우장식항아리이다. 이 토기는 현재 전시되고 있는 광주 노동동 11호 무덤의 토우장식항아리와 함께 당시의 장승의례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다.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1978년에 국보로 지정된 바 있다. 항아리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과



광주 계림로 30호 무덤에서 출토된 토우장식토기.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동물 토우들이 장식되어 있다.

특히 해설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에게 전시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누구나(단체 포함) 신청 가능하며 누리집(<http://naju.museum.go.kr>) 또는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